

화랑의 교육구상과 수련활동

박균섭*

화랑에 대한 연구는 한국 고대사회의 삶과 교육문제를 이해하는 각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학교교육체제의 발달이 두드러지지 못한 상황에서 화랑의 존재는 당시의 교육에 관한 윤곽을 그리는 것이며, 실제로 교육공백을 채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화랑의 교육체계는 오늘날의 문화적 기준과 인식의 틀로는 이해하기 힘든 동적 에너지를 갖추고 있다. 이는 당시의 삶과 교육을 주도하는 정신적 좌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역사주의의 관점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삼국시대의 문화와 정신은 모두 상호교섭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독창성의 이름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창조적 변형일 뿐이다. 그렇다면 화랑 연구에 있어서도 독창성의 오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기원을 추구하는 발생학적 사고는 기각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화랑 해석에는 그동안의 연구성과에 주목하되 이에 대한 방증과 비판을 위한 관점과 논의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화랑의 수련체계는 상마도의의(相磨道義)의 교육구상과 상열가악(相悅歌樂)·유오산수(遊娛山水)의 교육구상으로 짜여졌음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교육학적 설명과 비판적 논의를 통해 수련활동의 지향점을 고찰하였다. 화랑의 수련활동이 역사적 추이와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어떠한 변모의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주체의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I. 연구사의 검토 및 연구문제

교육현상과 문제에 대한 교육학적 이해에 있어서 화랑에 대한 검토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고대사회의 삶의 문제와 이에 관련한 교육의 모습을 살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채호는 낭가(郎家)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쓰면서 “랑(郎)은 곧 신라의 화랑이니, 화랑은 본래 상고 소도제단의 무사 곧 그 때의 선비라 칭하던 자인데, 고구려에서는 조의(阜衣)를 입어 조의선인(阜衣仙人)이라 하고, 신라에서는 미모를 취하여 화랑(花郎)이라 하였다. 화랑을 국선(國仙)·선랑(仙郎)·풍류도(風流徒)·풍월도(風月徒) 등으로 칭하였다”고 했다(신채호, 1925 : 104). 신채호에 의하면, 낭가는 시간적으로는 단군시대부터 삼국을 거쳐 고려시대까지 이르렀고, 지역적으로는 고구려, 신라 등 여러 나라에 널리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는 화랑을 신라라는 강역에 한정된 교육활동체계로만 파악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삼국이 오랜 적대관계로 인해 분화·이질화의 과정을 걸었다고는 하지만, 백제나 고구려와 달리 유독 신라에만 낭가적 요소가 발현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어느 정도의 차이를 거론하자면, 고구려와 백제가 민족고유의 문화를 중국문화의 충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파제 구실을 함으로써, 신라는 한민족의 고유성을 지키고 가꾸는 데 여유를 갖게 되었고 학술과 문화를 정제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화랑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일제 강점기의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였다. 화랑은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교육을 받는 청소년집단으로서 가무유희를 일상으로 삼는 청소년 사교단체였고, 신령과 교류하는 주술의례를 매우 중시했으며, 국가유사시에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선 전사집단이었던 점에 지적되었다(鮎貝房之進, 1932 ; 三品彰英, 1943). 하지만 일본인 학자들의 화랑에 대한 연구는 화랑의 본질과 가치를 선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의 패배의식을 드러내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테면 화랑이 인재의 양성과 등용, 심신의 수양, 도의의 연마와 양양이라는 국가에 대한 봉사적 기능으로서의 취지는 사라지고 성적 향락이나 퇴락한 샤머니즘으로서의 반국가적·반사회적 기능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며 이로써 한국사의 자율적 발전력이 결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최재석, 1987 ; 지교현, 1992). 당연한 결과로 일본인 학자들의 화랑 연구에서는 화랑이 민족의 고유사상에 토대를 두고 유·불·도 삼교를 횡적으로 조화시켰

으며 인간과 사회와 국가의 정신적 지표를 집약·승화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 있지 않다.

광복 이후에는 6·25를 거치면서 군인정신의 귀감이 될 역사의 유재(遺財)를 화랑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이선근, 1954). 하지만 이 역시 전화에 휩싸인 강토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국난극복을 위한 기간정신을 성급하게 강조하면서 극우의 논리와 잘못된 사관에 의해 오히려 화랑의 본질을 흐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화랑 연구가 불완전한 모색과 지향을 벗어나 차츰 화랑의 본질과 주제에 충실한 학술적 접근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본다. 그 중에서도 화랑과 교육의 깊은 관련과 해석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화랑도에 대한 교육학적·사회학적 논의가 중요한 고찰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봉수, 1960; 이기동, 1979; 박재문, 1985; 손인수, 1996).

사회사적으로 보아 고대 한민족의 청소년집회를 떠올리는 화랑은 조직적인 청소년 전사집단이었으나, 그 조직의 성원이 신라의 남자, 특히 청소년층을 모두 포괄하는 조직이었는가 아니면 그보다도 제한된 집단만이 가입하는 특수집단이었는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국가 성립후의 신라사회는 골품제에 입각한 계급의식이 강한 사회로, 인재를 등용할 때 남다른 제주나 뛰어난 공적을 보지 않고 골품으로써 그 범주를 삼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의복, 가옥 등의 계급적 식별이 상세히 규정되었다(『三國史記』, 卷33, 「色服」, 「車騎」, 「器用」, 「屋舍」). 이를 보더라도 화랑은 귀족층으로 제한된 집단이었다는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화랑을 따랐던 낭도는 사정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화랑은 귀족 자제로서 문호를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따르는 낭도들까지도 모두가 귀족 자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창(官昌)이나 사다함(斯多含)의 경우에서 드러나듯이 15세·16세의 화랑이 수백에서 천여 명의 낭도를 이끄는 장면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三國史記』, 卷44, 「斯多含」, 卷47, 「官昌」). 낭도들이 어린 화랑을 사부로 받들기도 어렵지만, 화랑 스스로도 일정한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 존재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화랑과 낭도는 엄격한 조직관리에 입각한 관계로 보기 힘들다. 화랑의 수련활동은 일정한 곳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많은 화랑들이 연합하여 명산대천을 순례하면서 이루어졌는데 그 때마다 수많은 낭도들을 전부 거느린

채 돌아다닐 수 없는 일이다. 화랑들의 국토 순례는 국가의 상황이 평안할 때만 허용되고 위급할 때는 금지되었는데, 그만큼 화랑은 평시에는 사회의 중심인물을 양성하는 수양단체였고 국가유사시에는 국난에 뛰어드는 청소년 전사집단이었던 것을 말해준다.

화랑의 성립 과정을 보면 여성 화랑으로부터 그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화랑의 본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성 화랑의 출발이 인재를 직접 선발하거나 교육을 직접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바로 이 사실이 화랑의 본질을 설명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화랑의 교육을 위한 기본 구상은 “도의를 서로 연마하고(或相磨以道義) 노래와 음악을 서로 즐기며(或相悅以歌樂) 산수를 찾아 노닐었는데(遊娛山水) 멀다고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다(無遠不至)”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三國史記』, 卷4, 「眞興王三十七年春」). 김부식이 최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를 인용하면서 밝혔듯이 화랑은 풍류(風流)의 속성을 갖는다. 화랑은 국선(國仙)이라는 국가적 직위와 칭호를 갖게 되었으며, 조정에는 화랑조직을 관장하는 화주(花主)가 있었고, 화랑의 명부인 풍류황권(風流黃卷)이 있었다(『三國遺事』, 卷2, 「孝昭王代竹旨郎」, 卷4, 「二惠同塵」). 화주는 화랑 조직을 관장하는 직임이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직제로 올라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삼국사기』의 직관지(職官志)에 화주와 관련된 직책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원화(原花=源花) 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대체 부활된 화랑 행사에서 첫 번째 화랑으로 뽑힌 사람은 설원랑(薛原郎)이었다. 그는 최초로 국선에 봉해졌으며 이를 기념하는 비가 강릉(溟州)에 세워졌다고 기록되어있다(『三國遺事』 卷3,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보면 화랑제도가 정식으로 발족한 시기는 576년(진흥왕 37)이며, 화랑제도는 이 때를 기점으로 그 규모나 내용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김충열, 1998 : 107-108). 화랑교육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광이 수나라에서 귀국했을 때(600년) 귀산(貴山)과 추항(筍項)이 평생토록 계명으로 삼을만한 가르침을 청한 것에 대해 세속오계(世俗五戒)를 가르침으로 제시했던 사실은 검토의 중요성을 갖는다(『三國史記』, 卷45, 「貴山」, 『三國遺事』, 卷4, 「圓光西學」). 그리고 화랑의 정신적 배경을 그리는 데 있어서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은 의미 있는 고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세속오계와 임신서기석은 모두 화랑교육의 흐름, 특히 교육과정 및 수련내용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화랑 연구의 초점을 화랑의 존재가 자취를 감춘 이후의 유품인 가무유희에만 맞추는 경우가 있다. 가무유희가 화랑시대의 중요한 기능이면서도, 화랑의 쇠퇴기 이후에는 화랑의 전체적인 특징적인 것처럼 유품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화랑의 본질을 살피기보다는 화랑의 유품에 집착하는 일은 지극히 통속적인 의도를 드러낼 뿐이다. 화랑 연구사에서 학술적으로는 재고의 가치가 없을 만큼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누락이 돋보이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구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 자료에 대한 분석과 이해의 기준을 당시의 사회사적 배경에서 찾고자 한다. 본고에서 활용한 주된 사료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이다. 자료상의 제한이 따르기는 하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김부식과 일연의 시대를 기점으로 하여 화랑을 이해한다는 기본적 의미를 확보하는 셈이다. 본고에서는 1989년에 발견되어 공개된 필사본 『화랑세기』는 검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자 한다. 김대문의 『화랑세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관심은 오직 김부식이 진본 『화랑세기』를 인용한 “현좌와 충신이 화랑으로부터 나오고(賢佐忠臣從此而秀) 양장과 용졸이 화랑으로 인해 생겨났다(良將勇卒由是而生)”는 기록에 국한된다(『三國史記』, 卷4, 「眞興王三十七年春」). 『삼국유사』에서는 진흥왕 때의 설원랑(薛原郎)이 최초의 국선이었다고 기록하였으나, 필사본 『화랑세기』에는 설원랑이 제7세 풍월주로 나타나며 제1세 풍월주는 위화랑(魏花郎)으로 되어있다. 『화랑세기』는 김대문이 쓴 진본을 옮겨 적은 것이라기보다는 후대인의 창작이거나 도가류(道家類)의 비기(秘記)일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필사본 『화랑세기』를 사료로 활용하는 것을 유보하며,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운출된 후에 화랑에 관한 후속 연구에서 반영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고에서 연구문제로 제기하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마도의(相磨道義)의 교육구상은 화랑의 시종일관 변치 않는 정신이었으며 그 핵심은 충도를 드러냄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화랑을 통일의 주역으

로 설명하는 한에 있어서 통일이후의 화랑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은 강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화랑이 서로 연마했다는 도의의 본질을 역사적 추이를 통해 분간하는 일은 불가피한 요청으로 남는다. 화랑정신의 변모 양상을 시계열 속에서 살피는 일은 화랑의 교육원형이 어떠한 변화의 반경을 그렸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상열가악(相悅歌樂)·유오산수(遊娛山水)의 교육구상은 화랑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는 것이며 이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어떠한 변이양상을 드러냈는가에 대해서 살피는 일이다. 상열가악과 유오산수의 수련체계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화랑의 상무정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바로 이 성급한 추단이 화랑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상열가악과 유오산수의 수련체계가 어떻게 해서 화랑의 본질적 특성으로 정착될 수 있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II. 상마도의의(相磨道義)의 교육구상과 수련활동

화랑제도가 국가적 운동으로 정식 발족한 해는 576년(진흥왕 37)이었다(『三國史記』, 卷4, 「眞興王三十七年春」). 하지만 15·16세에 화랑이 되었던 사다함이 가야 정벌에 전공을 세운 것은 562년(진흥왕 23)의 일이다. 그렇다면 김부식의 기록은 화랑제도가 국가적 운동으로 출발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전의 화랑의 존재와 활동을 무의 상태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김부식이 김흠운에 대한 사론(史論)에서 “신라인은 사람을 알아볼 길이 없음을 근심하여,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무리지어 놀게 하고 그 행실과 의리를 본 다음에 등용하려 하였다. 드디어 미모의 남자를 장식하여 이름을 화랑이라 하고 그를 받들게 하니 도중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한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三國史記』, 卷47, 「金歆運」).

화랑의 발족 당시(576년)에 제시된 상마도의의 수련과정에 대해서는 세

속오계의 등장(7세기 초)으로 인한 수련과정과 비교·이해함으로써 화랑교육의 성격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세속오계가 제시되기 전 화랑 성립기의 수련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화의 경우와 화랑의 경우로 분절하여 진흥왕이 지냈던 교육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원화 : 진흥왕은 천성이 멋스러워서(天性風味) 크게 신선을 숭상하여(多尙神仙) 민가의 처녀들 중에 아름다운 자를 선발하여 원화(原花)를 삼았다. 그것은 무리를 모아서 사람을 뽑고 그들에게 효제충신(孝悌忠信)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는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요이기도 했다(『三國遺事』, 卷3,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
- ② 화랑 : 나라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 진흥왕은 또 다시 영을 내렸다. 양가의 남자 중에서 덕행이 있는 자를 뽑아 그 명칭을 고쳐(원화에서) 화랑이라 했다. 처음으로 설원랑(薛原郎)을 만들어 국선(國仙)을 삼으니 이것이 화랑국선의 시초이다. 그래서 강릉(溟州)에 비를 세우고 이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것을 고쳐 착한 일을 하게 하고, 옷사람을 공경하며 아랫사람에게 순하게 하니 오상(五常)과 육예(六藝), 삼사(三師)와 육정(六正)이 왕의 시대에 널리 행해졌다(『三國遺事』, 卷3,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

진흥왕이 화랑의 덕목으로 ①에서 공자사상의 근간인 효(孝)·제(悌)·충(忠)·신(信)을, 그리고 ②에서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오상과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의 육예를 제시한 것은 화랑 성립기의 수련체계와 이상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적어도 화랑 성립기의 이상에는 치열한 수준의 전쟁이데올로기는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랑 성립기의 이상은 오래지 않아 변형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최치원이 화랑정신에 반영된 유교사상을 설명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효도하고(入則孝於家) 밖에 나가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出則忠於國) 공자의 주지이다(魯司寇之旨也)”고 말한 데서 간취할 수 있다(『三國史記』, 卷4, 「眞興王三十七年春」). 물론 최치원의 이해방식에는 공자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개입되어있다. 공자의 구상에는 애초부터 충효론(忠孝論)이 들어있지 않았으며 부모에 대한 효(孝), 동기간의 우애(悌), 맡은 일에 대한 성실

(忠), 동료간의 신의(信)를 일컫는 효제충신론(孝悌忠信論)이 강조될 뿐이었다(박균섭, 2002 : 359-3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치원이 공자사상의 핵심이 충효론에 있는 것처럼 비틀어 말한 것은 전쟁이테올로기를 배제하고서는 화랑정신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치원은 화랑의 교육과정과 수련내용에 불교정신도 깊이 개입되었음에 대해 “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않고(諸惡莫作)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諸善奉行) 석가모니의 교화이다(竺乾太子之化也)”라고 말하였다(『三國史記』, 卷4, 「眞興王三十七年春」). 화랑과 불교의 연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죽지랑(竹旨郎)의 탄생설화를 들 수 있다(『三國遺事』, 卷2, 「孝昭王代竹旨郎」). 호세랑(好世郎)의 낭도였던 혜숙(惠宿)이 후일 신라 정토신앙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화랑과 불교의 깊은 연관을 말해준다(『三國遺事』, 卷4, 「二惠同塵」). 고유사상만 가지고는 이론체계의 확립이 어려웠던 당시의 사상사적 흐름 속에서 불교사상은 화랑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수용되었다(홍희유·채태형, 1995 : 34). 이는 사상사적으로 신라에서 화랑제도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던 시기에 불교에 대한 정책도 탄압에서 장려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사실과 흐름을 같이한다. 진흥왕은 544년(진흥왕 5)에는 누구나 승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승인하였으며(『三國史記』, 卷4, 「眞興王五年三月」), 진흥왕과 왕비는 그들 스스로가 불교에 귀의하여 승려가 되었다(『三國史記』, 卷4, 「眞興王三十七年秋八月」). 이렇게 불교는 사회를 이끄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됨으로써 화랑의 정신적 기반을 구성하는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화랑의 교육구상과 수련활동의 지향점에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은 7세기 초였다. 수나라를 유학하고 귀국한(600년) 원광은 귀산과 추항의 요청에 답하여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우유신(交友有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의 세속오계를 제시하였다(『三國遺事』, 卷4, 「圓光西學」). 이 계율은 삼국의 정립과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사회사적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세속오계는 화랑의 교육내용 및 수련활동에 전쟁이테올로기가 확산되어있음을 보여준다. 결사표(乞師表, 608년) 문제와 관련하여 원광은 진평왕에게 “자기가 살려고 남을 멸하는 것은 승려의 할 것이 아니나 빈도가 대왕의 나라에 있어 대왕의 수초(水草)를 먹으

면서 어찌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 것도 그가 당시의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대응을 보였을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三國史記』, 卷4, 「眞平王三十年」).

화랑정신을 다섯 가지 계율로 분류하고 체계화시킨 것이 세속오계이며, 이는 화랑에게 분명한 행동의 근거와 가치기준을 제시한 것이었다. 세속오계의 성립 이전과 이후의 교육과정과 수련내용의 차이는 화랑의 주역들이 전쟁에 임하는 정신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삼국의 정립과 전쟁은 서로 다른 자국민의식의 형성은 물론 적대감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백제의 개로왕이 북위(北魏)에 보낸 글에서 고구려를 시랑(豺狼)·추류(醜類)·장사(長蛇)로 표현하였고(『三國史記』, 卷25, 「蓋鹵王十八年」), 선덕왕 때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에 원조를 청하러 갔을 때 백제에 대하여 장사(長蛇)·봉시(封豕)라 하였다(『三國史記』, 卷5, 「善德王十一年」). 김춘추가 당에 갔을 때도 역시 백제를 강활(强猾)·흉악(凶惡)으로 표현했다(『三國史記』, 卷5, 「眞德王二年」). 당시의 삼국은 심각한 적대와 분화의 과정을 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랑의 이념에 민족에 대한 이상과 지향점이 드러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며, 그 책임을 어느 한 나라에만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세속오계가 제시된 이후인 7세기 초의 상황은 화랑 성립기와는 달리 충성과 결사의 정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세속오계를 평생의 가르침으로 간직했던 귀산과 추향이 602년에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사실은 예사롭지 않은 역사적 흐름을 보여준다(『三國史記』, 卷4, 「眞平王二十四年秋八月」, 卷45, 「貴山」). 당시 신라에서는 전쟁이 계속되면서 왕경인(王京人) 중심의 군사활동체제가 지양되고 전국민에 대해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되어 죽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는 살생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되었다. 김후직(金后稷)은 진평왕이 날로 광부(狂夫)·엽사(獵士)와 더불어 산야를 달리면서 사냥에 빠져있음에 대해 『노자』의 “말을 달리고 사냥하는 것은(馳騁田獵)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令人心狂)”는 말로서 경계하고, 이를 그치지 못하면 안으로는 마음이 방탕하고 밖으로는 나라가 망할 것임을 간한 바 있다(『三國史記』, 卷45, 「金后稷」). 진평왕 때의 승려 혜숙도 사냥을 좋아하던 화랑 구참공(瞿叅公)

에게 “오직 살육을 탐하고 다른 것을 해쳐 자기를 기를 뿐”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화랑들이 15·16세의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서 쉽게 죽음을 택했던 것도 그들의 애국심과 충렬의 기상을 보여주는 한편으로는 살생에 대해 무감각했던 당시의 세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삼국이 생사존망을 결정하는 전국시대에 화랑들의 애국심과 충렬의 기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금석문 자료로 1934년 경북 월성군 건곡면 금장리 언덕에서 발견된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은 검토의 중요성을 갖는다.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서하여 기록한다(壬申年六月十六日二人并誓記). 하늘을 두고 맹서한다(天前誓).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 충도를 굳게 지키고 그릇됨이 없기를 맹서한다(今自三年以後忠道執持過失无誓). 만약에 이 서약에 어긋남이 있으면 하늘로부터 큰 죄를 받을 것을 맹서한다(若此事失天大罪得誓). 만약에 나라가 불안해지고 크게 어지러워진다면 모름지기 충도를 실행할 것을 맹서한다(若國不安大亂世可容行誓之). 또 지난해 신미년 7월 22일에 크게 서약한 바 있는 『시경』, 『상서』, 『예기』, 『춘추 좌씨전』을 3년 동안 차례로 터득할 것을 맹서한다(又別先辛未年七月廿二日大誓詩尙書禮傳倫得誓三年).

임신서기석의 임신년이 어느 해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임신서기석의 문체는 향찰(鄕札)의 원시형이며 한자를 빌었지만 한문은 아니다. 고졸(古拙)한 문체라는 점에서 대략적인 시간 범주는 신라의 중고(中古) 이전의 시대로 보인다. 그런데 이 임신서기석의 문체는 경주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의 문체와 동일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남산의 축성에 종사했던 공인(工人)이 3년 이내에 성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경우 벌을 받겠다고 한 맹서와 닮아있다. 신성비가 591년(진평왕 13)에 건립된 것이라는 사실은 임신서기석의 연대를 추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임신서기석의 서약 내용이 태평세월을 구가한 것이 아니며 난세에 처하는 각오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통일 이전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임신서기석에 나타나는 사상적인 성격의 단계로 보아 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 귀산·추향과 동시대인이든가 바로 그 다음세대의 인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임신서기석은 612년(진평왕 34)으로 비정

할 수 있다(김철준, 1975 : 216). 충도를 굳게 지킨다는 서약과 나라가 불안해지고 크게 어지러워진다면 충도를 실행할 것이라는 다짐 속에서도 다가올 사회상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신라사에서 효도에 관한 기록이 신라 중대에서 하대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충도를 절대적 가치로 강조한 임신서기석은 7세기 초의 화랑 정신과 삶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7세기 초의 전쟁이데올로기의 흐름은 7세기 중반으로 이어지면서 그 강도가 더욱 높아졌는데 이는 당시 화랑들의 각오와 목숨을 건 투쟁방식에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유신이 “내가 평생 충과 효를 실천할 것을 스스로 기약하였다”며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데서 화랑을 중심으로 한 신라사회의 핵심 가치와 규범을 읽을 수 있다. 세속오계의 제1덕목과 제2덕목인 충과 효가 언뜻 보기에 등가적 배열구조를 취하는 듯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분명 충이 효를 우선한다는 것을 간취하기 어렵지 않다. 그것은 공자시대의 효제충신론으로부터의 본질적인 이탈이었다. 김유신의 동생이며 진평왕 때의 화랑이었던 김흠춘은 아들 반굴(盤屈)에게 “신하로서는 충이 가장 중하고 자식으로서는 효가 가장 중하다. 위급한 때를 당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충과 효를 아울러 이룰 수 있다”고 하였고, 아들 반굴은 그 가르침을 받들어 적진으로 돌입하여 힘껏 싸우다 죽었다(『三國史記』, 卷5, 「太宗武烈王七年」). 역시 진평왕 때의 화랑이자 반굴의 아들인 김영운은 “적진에 임하여 용맹이 없는 것은 『예기』에서 경계한 바요 나아감이 있고 물러섬이 없는 것은 사졸의 떳떳한 일이다. 장부가 일을 당하여 어찌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겠느냐”라고 했다(『三國史記』, 卷47, 「金令胤」). 태종무열왕의 사위이자 신문왕의 장인이었던 김흠운은 화랑 문노(文努)의 낭도였다. 전장에서 백제 군사의 기습을 받아 모두 도망하게 되었을 때 “이름 없이 죽지 말라”는 권유를 받고서 “대장부가 이미 나라에 몸을 맡겼거늘 사람이 알고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어찌 감히 이름을 구하겠는가”라고 하며 싸우다 전사하였다(『三國史記』, 卷47, 「金歙運」). 김부식은 김흠운에 대한 사론을 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라인은 사람을 알아볼 길이 없음을 근심하여,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무리지어 놀게 하고 그 행실과 의리를 본 다음에 등용하려 하였다. 드디어 비모

의 남자를 장식하여 이름을 화랑이라 하고 그를 받들게 하니 도중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도의를 서로 연마하고(或相磨以道義) 노래와 음악을 서로 즐기며(或相悅以歌樂) 산수를 찾아 노닐었는데(遊娛山水) 멀다고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다(無遠不至). 이로 해서 그 사(邪)와 정(正)을 알아 뽑아서 조정에 천거하였다. 그러므로 김대문이 “현좌와 충신이 화랑으로부터 나오고(賢佐忠臣從此而秀) 양장과 용졸이 화랑으로 인해 생겨났다(良將勇卒由是而生)”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상고(上古)·중고(中古)·하고(下古) 3대의 화랑이 무려 200여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의 꽃다운 이름과 아름다운 행실은 전기(傳記)에서와 같이 자세하다. 흠운과 같은 사람도 낭도였는데 국사에 목숨을 바쳤으니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三國史記』, 卷47, 「金歆運」).

죽죽은 선덕여왕 때의 인물로 대야성(大耶城)이 포위되었을 때 항복과 도피를 모두 거부하면서 “내 아버지가 나를 죽죽이라고 이름지은 것은 나로 하여금 한겨울(歲寒)에도 잎이 지지 말라는 것이요, 꺾일지언정 굽히지 말라는 것이니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여 살아서 항복하겠는가”라고 말하고 끝까지 싸우다 죽었다(『三國史記』, 卷5, 「善德王十一年」, 卷47, 「竹竹」). 비령자(丕寧子)는 진덕여왕 때의 인물로 “위로는 국가를 위하고 아래로 친구(知己)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였다(『三國史記』, 卷47, 「丕寧子」). 해론은 “의 없이 사는 것은 의를 지니고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며 백제군과 싸우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적진에 뛰어들어 전사했다. 진평왕은 이 소식을 듣고 감복하여 그 가족에게 후하게 상을 베풀었으며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장가(長歌)를 지어 조위하였다(『三國史記』, 卷4, 「眞平王四十年」, 卷47, 「奚論」). 문무왕 때의 장수이자 심나의 아들인 소나는 평소 아내에게 “장부는 마땅히 전쟁터에서 죽어야 한다”고 했으며 “나는 실로 죽기가 두려워 살기를 도모하지 않는다”며 적과 싸우다 몸에는 화살이 고슴도치의 털처럼 박혀 쓰러져 죽었다. 그의 죽음을 전해들은 문무왕은 눈물을 흘리며 충절에 탄복하고 잡찬(迺漣)의 벼슬을 추증하였다(『三國史記』, 卷47, 「素那」). 이같이 화랑의 전투정신의 배후에는 국가가 그들의 죽음에 대해 대대적인 보상과 추증정책을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품일(品日)이 아들 관창을 적진에 내보내면서 “오늘은 공명을 세워(今日是立功名) 부귀를 취할 때

(取富貴之時)”라고 당부했던 것을 보더라도 신라가 화랑정신의 고양에 얼마나 막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다(『三國史記』, 卷47, 「官昌」). 우계 성혼(牛溪 成渾)은 신라의 화랑이 전사적 기질을 강고하게 지니게 되었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라는 바다의 모퉁이에 치우쳐있는 나라로 토지는 협소하지만 인제는 가장 성하다. 절의를 위해 죽는 병사가 앞뒤를 이어 나오고 격한 풍속을 지니고 있어 신하가 임금 앞에서 죽고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어도 이를 보고 당연히 여겨 조금도 가로막는 자가 없다. 이는 진실로 그 임금이 절의를 중히 여기고 장려한데서 연유한다. 무릇 적에게 나아가 싸우다 죽은 병사에게는 관작을 추증하고, 그 자손에게는 벼슬과 녹봉을 내리며, 그 처자식에게는 위로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은택이 심히 흡족하여 감동하고 흥기하게 되는 것이다(『牛溪集』, 卷3, 「時務便宜」五條).

이렇게 통일이전까지 화랑의 주된 속성이었던 전투적 자세는 투쟁의 상대가 사라진 통일이후의 상황에서는 크게 누그러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충을 과도하게 강조한다거나 목숨을 건 전투정신을 고취시키는 일은 없어졌다.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화랑의 기백이 유교사상에 의해 퇴색되었다는 식의 이해는 화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없다. 통일이후 화랑의 수련활동은 확고한 정신교육과 엄격한 훈련과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심과 삶의 주제로 채워질 수 있게 되었다.

경성교육의 성격을 벗어날 수 있는 통일이후의 교육에서는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성찰과 관조의 깊이를 더해가는 연성교육의 특징을 보이기 시작했다. 헌안왕 때의 응렴(膺廉)은 화랑이 되어 세상을 돌아다니고 난 후에 행실이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남의 윗자리에 있을만한 사람이면서도 겸손하여 남의 밑에 있는 사람, 세력이 있고 부자이면서도 옷차림은 검소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본래부터 귀하고 세력이 있는데도 그 위력을 부리지 않는 사람을 지목했다(『三國史記』, 卷11, 「憲安王四年」, 『三國遺事』, 卷2, 「四十八景文大王」). 진성여왕 때의 화랑 효종랑(孝宗郎)은 지은(知恩)의 효행에 감복하여 지은에게 곡식과 옷가지를 보냈고 효종랑의 낭도들도 그와 같이 했다(『三國史記』, 卷48, 「孝女知恩」, 『三國遺事』, 卷5, 「貧女養母」). 이와 같은 단편적인 사실은 이제

화랑의 관심사가 전쟁과 살육이라는 외적 가치의 문제를 벗어나 삶의 내재적 가치와 본질적인 문제를 묻는 방향으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이후의 화랑은 배타성으로서의 속태나 전쟁의 광기에서 벗어나 인간의 정신세계를 휴머니즘으로 채워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은 화랑의 수련활동에 온전하게 투영되지 못하는 역사적 한계와 현실을 드러냈다.

Ⅲ. 상열가악(相悅歌樂) · 유오산수(遊娛山水)의 교육구상과 수련활동

최치원은 화랑정신의 배경에 자리잡고있는 도교사상에 대해 “꾸밈과 조작이 없는 일에 처하고(處無爲之事)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行不言之教) 노자의 종지이다(周柱史之宗也)”라고 하였다(『三國史記』, 卷4, 「眞興王三十七年春」). 이 언급은 최치원의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이를 풍류라 한다. 가르침이 배풀어진 근원은 『선사(仙史)』에 상세히 갖추어있다”고 한 총론과 간격이 있다. 후자는 우리 민족에게 고유사상인 선교(仙敎)가 선재하였고 시간적으로 뒤늦게 도교사상이 수입되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선교는 도교의 무위자연과는 달리 산과 바다의 자연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장엄한 기개를 기르는 유위자연에 가깝다. 선교는 자연을 낭만과 감상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신을 수련하고 상무정신을 기르며 산악을 정복하고 강하를 능멸히 볼 수 있는 기개를 갖추고 있었다(류승국, 1976 : 99-100). 중국의 도교가 세상을 피하는 가르침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도인 반면, 고대 한국의 선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선인(仙人) 온달(溫達), 국선(國仙) 김유신(金庾信), 선도(仙徒) 김흠순(金欽純), 김인문(金仁問), 관창(官昌), 김영윤(金令胤), 김흠운(金歆運) 등이 나라를 위해 전장에 종사하거나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데서도 알 수 있다(신채호, 1910 : 47-48). 이는 통일이전의 화랑의 상열가악과 유오산수가 장엄한 기개와 강인한 상무정신을 기반으로 한 수련활동이었

음을 말해준다.

화랑의 정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성 화랑의 전신이 여성 화랑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 활동의 효율성이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 및 주위환경에 관한 정보에 달려있다면, 육체적 능력에서 일단 약체로 인정되고 전쟁 수행 능력을 갖지 못하는 여성이 초기 화랑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화랑의 본질을 전투기능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화랑은 전장에서 임전무퇴의 전투정신을 발휘했지만 거기에는 상무정신과 함께 종교적·주술적 색채가 짙게 깔려있다. 화랑의 정신형태로서의 주술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당시의 시가와 음악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화랑이 가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면, 그것은 신라문화를 이해하는 핵심어로서 남아있어야 한다. 『삼국사기』에서는 음악사와 화랑의 관련을 살필 수 있는 단편적이지만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회악(會樂)과 신열악(辛熱樂)은 유리왕 때에 지은 것이고 돌아악(突阿樂)은 탈해왕 때 지은 것이고 지아악(枝兒樂)은 파사왕 때 지은 것이고 사내악(思內樂)은 내해왕 때 지은 것이고 가무(筊舞)는 내물왕 때 지은 것이고 우식악(憂息樂)은 눌지왕 때 지은 것이다. 대악(碓樂)은 자비왕 때 사람인 백결 선생이 지은 것이고 간인(竿引)은 지증왕 때 사람인 천상옥개자(川上郁皆子)가 지은 것이다. 미지악(美知樂)은 법흥왕 때에 지은 것이고 도령가(徒領歌)는 진흥왕 때에 지은 것이다. 날현인(捺絃引)은 진평왕 때 사람인 담수(淡水)가 지은 것이고 사내기물악(思內奇物樂)은 원랑도(原郎徒)가 지은 것이다. 내지(內知)는 일상군(日上郡)의 음악이고 백실(白實)은 압량군(押梁郡)의 음악이고 덕사내(德思內)는 하서군(河西郡)의 음악이고 석남사내(石南思內)는 도동벌군(道同伐郡)의 음악이고 사중(祀中)은 북외군(北隈郡)의 음악인데, 이들은 모두 우리 향인(鄉人)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지었던 것이다. 성악기(聲樂器)의 수효와 가무하는 모습은 후세에 전하지 않는다(『三國史記』, 卷 32, 「樂」).

위의 기록에서 보면 적어도 도령가, 날현인, 사내기물악은 화랑과 직·간접으로 연관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령가는 화랑의 성립기인 진

홍왕 때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과 도령이 화랑에 대한 별칭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화랑에 관한 노래임을 알 수 있다. 신채호는 화랑을 도령이라고 했음에 대해 “선인(先人)은 고구려사에 혹 선인(仙人)이라 썼나니 선인(先人)·선인(仙人)은 다 선비란 말의 음역이요, 화랑은 신라 악지(樂志)에 도령(徒領)이라 하였나니, 도령(徒領)은 도령이라는 말의 음역이라”고 했다(신채호, 1931-1932 : 385). 날현인을 지은 담수는 대세(大世)와 교유했던 승려였는데(『三國史記』, 卷4, 「眞平王九年七月」), 대세는 화랑이며 그를 따르는 담수는 승려 낭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날현인도 화랑과 관련이 있는 음악일 가능성이 높다. 사내기물악은 원랑도가 지었다는 말에서 이는 진흥왕 때의 설원랑의 낭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보면 진흥왕 때와 진평왕 때에는 화랑에 의해서 노래가 만들어졌거나 화랑에 관한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열가악·유오산수의 교육구상이 삼국통일 이후에 등장했다는 일부의 견해가 명백한 오류임을 말해준다. 화랑 교육에서는 초창기부터 상열가악·유오산수의 구상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른 수련활동이 권장되었다. 상열가악과 유오산수의 수련활동을 통해 현좌와 충신, 양장과 용졸을 배출하는 일은 그 당시 국민교육의 핵심 과제였다.

해성가, 찬기파랑가, 도술가 등과 그 밖의 향가의 내용을 보거나 향가와 관련된 몇 가지 전설의 내용을 보면 화랑의 수련활동은 향가와 상당한 관련이 있고, 여기에는 샤머니즘적 속성이 짙게 드리워져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월명사가 스스로에 대해 “다만 국선의 무리에 속해 있어(但屬於國仙之徒) 향가만 알 뿐(只解鄉歌)”이라고 한 말을 통해서도 화랑과 향가의 관계가 파악된다(『三國遺事』, 卷5, 「月明師兜率歌」). 통일 이후의 예로 경문왕 때의 화랑관계 곡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선 요원랑(邀元郎), 예흔랑(譽昕郎), 계원(桂元), 숙종랑(叔宗郎) 등이 통천(金蘭)을 유람할 때 임금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려는 은근한 뜻이 있었다. 이에 노래 3수를 지어 사지(舍知) 심필(心弼)을 시켜 침권(針卷)을 대구화상(大矩和尚)에게 보내 세 가지 곡을 짓게 하니, 첫째가 현금포곡(玄琴抱曲)이고 둘째가 대도곡(大道曲)이며 셋째가 문군곡(問群曲)이었다. 대궐에 들어가서 왕에게 아뢰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었다. 이 노래는 알

려지지 않는다(『三國遺事』, 卷2, 「四十八景文大王」).

노래가 알려지지 않아 그 내용과 성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화랑에 의해 향가가 구가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며 당시의 샤머니즘적 배경과 속성으로 보아 향가는 무가(巫歌)·주가(呪歌)·제가(祭歌)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화랑 관련 기사에 적의 내습을 미연에 막고 때로는 흉조를 제거하여 치국안민에 이바지한다고 말한 것은 당시 신라의 정치본질이 제정유착(祭政癒着)의 속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평왕 때의 거열랑(居烈郎), 실처랑(實處郎), 보동랑(寶同郎) 등의 화랑 무리가 금강산(楓岳)에 노닐고자 했을 때 혜성(彗星)이 28수(宿) 중 중심이 되는 큰 별(心大星)을 범하였다. 낭도들이 이것을 이상스럽게 생각하여 여행을 중지하려 했다. 이때에 용천사가 향가를 지어 부르자 성괴(星怪)가 사라지고 왜병이 물러가게 되었고, 이에 왕이 기뻐하여 낭도들을 금강산에 놀러 보냈다고 하였다(『三國遺事』, 卷5, 「融天師彗星歌眞平王代」).

화랑의 행태를 통해 천지자연의 운행이나 천재지변에 대해 두려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강단 있는 입장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적의 침입도 무가·주가·제가에 의해 해소시켜 국난을 막을 수 있다는 예화는 인간이 정말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대상은 혜성의 출현이 아니라는 또다른 세계 이해를 보여주지 못한다. 왜병 내습의 조짐인 천괴를 없앴으로써 왜병을 퇴치시켰다는 이야기는 화랑의 상무정신이 샤머니즘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샤머니즘은 이렇게 화랑의 수련활동을 떠받치고있는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었다. 다음의 경우도 불교적 윤색이 가해졌을 뿐 그 본질에 있어서는 샤머니즘이 작용하고 있다.

장춘랑(長春郎)과 파랑(罷郎)이 백제의 군사와 황산(黃山)에서 싸울 때에 진중에서 죽었는데 후에 백제를 공격할 적에 태종무열왕의 꿈에 나타나 “신들은 전에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쳤고 지금 백골이 다 되었으나 나라를 수호하려고 싸움터에 나가 태만하지가 않았는데 소정방의 위엄에 놀려 남의 뒤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원컨대 왕께서는 저희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주십시오”라고 하거늘 왕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두 혼령을 위하여 하루동안

모산정(牟山亭)에서 불경을 외고 또한 한산주(漢山州)에 장의사(壯義寺)를 세워서 그들의 명복을 빌게 했다(『三國遺事』, 卷1, 「長春郎罷郎」).

샤머니즘에 의하면 죽은 자가 산 자를 찾아오는 길은 현신(現身)의 방법으로, 용(龍)·죽엽군(竹葉軍)·만파식적(萬波息笛)과 같은 변형된 물활정령(物活精靈)의 방법으로, 그리고 몽조(夢兆)·영매작용(靈媒作用)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김인회·정순목, 1974 : 146). 장춘랑과 파랑의 고사에는 화랑의 상무정신에 몽조·영매작용과 같은 샤머니즘적 방법이 자리잡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화랑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수련활동은 유교적 이성도야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연과 일체가 되어 상열가악·유오산수하는 샤머니즘 특유의 감성도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경덕왕 때의 충담사가 지은 찬기파랑가는 기파랑(耆婆郎)이 화랑으로 있으면서 흰 구름을 따라 동해안을 노닐던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三國遺事』, 卷2,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이는 상열가악과 유오산수라는 수련활동의 범위가 “멀다고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말처럼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으며, “жат나무 가지 드높아 서리 모를 화랑”이라는 말을 통해 상열가악과 유오산수는 그저 가무유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의를 연마하고 실천하는 원천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화랑의 상열가악과 유오산수의 무대로는, 진평왕 때의 거열랑, 실처랑, 보동랑 등이 남도와 함께 금강산에 유람했고(『三國遺事』, 卷5, 「融天師曄星歌眞平王代」), 효소왕 때의 부례랑과 남도, 그리고 경문왕 때의 요원랑, 예혼랑, 계원, 숙종랑 등이 통천에 유람했고(『三國遺事』, 卷3, 「栢栗寺」, 卷2, 「四十八景文大王」), 헌안왕 때의 국선 응렴은 사방을 유람하면서 행실이 아름다운 세 사람을 만났으며(『三國遺事』, 卷2, 「四十八景文大王」), 진성여왕 때의 효종랑은 남도와 함께 경주 남산의 포석정에 놀았다(『三國遺事』, 卷5, 「貧女養母」)는 기록을 통해 그 범주를 그려볼 수 있다. 화랑의 수련장으로 지목되는 곳은 총석정(叢石亭)의 사선봉(四仙峰), 금란굴(金蘭窟), 삼일포(三日浦), 사선정(四仙亭), 영랑호(永郎湖), 경포대(鏡浦臺), 한송정(寒松亭), 월송정(越松亭) 등에 이르는 동해안의 명승지와 백령도(白翎島)의 아랑포(阿郎浦), 지리산의 영랑점(永郎岾), 언양의 반구대(盤龜臺)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있다(김상

현, 1999 : 540).

반구대 암각화의 하단부분에는 신라인들이 새긴 많은 글자가 있다. 그 중에는 랑(郎)자가 많아 이 곳이 화랑이 노닐고 마음의 각오를 다진 수련활동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구대와 가까운 천전리석각(川前里石刻)에도 이곳이 화랑의 수련장이었음을 알려주는 간지, 연호, 승려 이름, 절 이름, 화랑 이름 등이 새겨져 있다(김기웅, 1974 : 85-110). 여기에는 선랑(仙郎), 모랑(慕郎), 관랑(官郎), 충양랑(沖陽郎), 영랑(永郎) 등의 이름이 나온다. 특히 영랑에 관해서는 “술년 6월 2일에 영랑이 수련기간을 마쳤다(戊年六月二日永郎成業)”는 글이 새겨져 있다. 영랑은 사선(四仙)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데 『삼국사기』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사선과 이들의 활동연대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사선 중에서 그 이름이 확실한 국선은 영랑 뿐이다. 영랑과 관련된 지명으로 금강산의 영랑봉, 지리산의 영랑점, 속초의 영랑호가 생겨나기도 했다. 영랑의 활동연대에 관한 간접 기록을 분절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692년(효소왕 1) 9월 7일에 효소왕은……부례랑(夫禮郎)을 국선으로 삼았고 그의 무리가 1천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안상(安常)과는 더욱 친했다. 693년(효소왕 2) 3월에 부례랑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통천(金蘭)으로 놀러갔다. 그런데 원산만(北溟)의 경계에 이르렀다가 적적(狄賊)에게 사로잡혀갔다. 이에 문객들은 모두 어쩔 줄 몰라 하여 그대로 돌아왔다. 그러나 안상은 홀로 그를 쫓아갔는데 이 때는 3월 11일이었다(『三國遺事』, 卷3, 「栢栗寺」).

② 세상에서는 안상을 준영랑(俊永郎)의 무리라고 했으나 이 일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영랑(永郎)의 무리에는 오로지 진재(眞才)·번완(繁完) 등이 이름만 알려졌지만 이들도 역시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三國遺事』, 卷3, 「栢栗寺」).

①을 통해 사선 중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안상이 효소왕 때에 활동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랑은 안상과 함께 사선으로 거론될 뿐이며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가 어느 시대에 활동한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②에서 “준영랑=영랑”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준영랑=영랑=대영랑”이라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영랑의 활

동에 관한 하나의 기록을 만날 수 있다. 757년(경덕왕 15)에 “대영랑(大永郎)이 흰여우(白狐)를 바치매 남변(南邊) 제일의 직위를 내렸다”는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三國史記』, 卷9, 「景德王十五年」). 만일 여기서 말하는 대영랑이 영랑을 일컫는 것이라면 영랑의 활동연대는 8세기 중반까지 연장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은 사선의 활동시기가 통일이후라는 점이다. ①에서 부레랑이 적에게 잡혀갔을 때 문객들이 모두 어쩔 줄 몰라 하여 그대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놓고 볼 때, 이미 당시의 화랑은 전사집단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단지 유희·사교집단의 성격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랑집회의 가무가 어떠한 기능과 목적을 지닌 것이었는지를 상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화랑집회에서는 본질적으로 가무가 중시되었고, 훗날에는 가무가 화랑의 가장 두드러진 유품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화랑제도가 본래적 기능을 잃은 신라말기에 이르면 화랑 가무의 변질로서 사선악부(四仙樂部)가 등장하였다.

화랑이 명산대천을 주유하면서 춤과 노래를 통해 수련활동을 실시한 것은 화랑 최초의 정신을 망각한 일이며 이는 통일이후의 말기적인 현상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鮎貝房之進, 1932; 손진태, 1948). 통일의 염원에 불타던 진취적·전투적·호국적·국수주의적 화랑정신과는 달리 통일이후에는 평화시대의 문약에 빠져 유희·사교를 목적으로 한 심미적·평화적·정적·명상적인 성격의 수련활동에 치우친 화랑집단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열가악과 유오산수는 화랑의 말기적인 현상이 아니었으며 화랑의 수련활동은 애초부터 주술적 수업과 전사 훈련에 의해 구성된 것이었다(이기동, 1979: 20).

다만 화랑이 통일이후 종래의 엄격한 정신은 사라지고 가무유희를 일삼는 방향으로 변질되어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김인회·정순목, 1974; 손인수, 1996). 이는 무당이 굿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쾌자를 입고 칼과 창을 들고 전투적인 굿을 하기도 하고 장삼 고깔에 부채를 들고 평화적인 굿을 하기도 하는 경우와 비슷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랑의 수련활동은 이렇게 통일이전과 달리 통일이후에는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그러다가 통일신라 말기에 또다시 과거와 같은 전투적 활동이 현실적으로 요청되었을 때에는 이미 평화적인 옷을 벗고 전투적인 차림을 하기에는 너무 익숙지 못한 상태로 전락되었다. 화랑의 수

련활동은 이렇게 통일을 전후로 한 사회적·국가적 이념과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IV. 논의 및 결론

화랑제도의 발족 당시에 꽃다운 남자로 출발했던 화랑은 7세기 초·중엽에 이르면서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결사대와 같은 존재로 변모되어 갔다. 무모한 죽음을 기꺼이 택하거나 아직 어린 화랑을 전장에서 제물로 삼아 전쟁을 독려하거나 사기를 앙양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사실들을 접할 때, 화랑은 전쟁의 광기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신라가 화랑을 중심세력으로 삼아 삼국을 통일했다지만 이로 인한 강토의 상실도 컸다. 일본인 학자들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던 것은 만주의 역사를 한국사의 범주로부터 분리시켜 한국민족의 이질적 구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김영하, 1990 : 283). 화랑이 통일의 주역이었다면 화랑은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자행했다는 죄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결국 화랑의 교육체계 안에 민족에 대한 이상이 애초부터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화랑의 활동궤적을 그리는 일이 민족의 분열과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한 신라중심론이 역사 속으로 환원되는 일에 대한 경계와 성찰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의 역사를 가지고 보면, 고구려가 372년(소수림왕 2)에 태학을 설립한 반면 신라는 이보다 310년이나 뒤진 682년(신문왕 2)에 국학을 설립하였으며, 이는 예사롭지 않은 시간차를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신라에서는 유교적 형식교육이 성립되기 이전의 교육공백을 화랑이 채웠다는 점에서 볼 때 그것은 격차로 표현될 일이 아니다.

화랑제도는 상마도의, 상열가악, 유오산수로 형상화되는 교육의 이상태를 갖춤으로써 삶과 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역사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화랑의 수련활동은 학교라는 비좁은 틀 안에서 삶을 파악하지 않고 삶

의 무대 전체를 활동공간으로 삼았음을 말해준다. 화랑은 여행을 통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체험하고 단체생활을 익히며 새로운 건문을 넓혔다. 그들에게 있어서 명산대천은 단순·저급한 행락의 공간이 아니라 큰 배움과 넓은 수행의 터전이었다. 이렇게 화랑의 교육에 관한 구상은 문과 무, 정신과 육체,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통해 삶의 주체성을 구체적 표현의 형태로 드러내는 데 있었고, 그들만의 세계에서 사고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생활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두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학교교육 및 지식위주의 교육에 맡긴 결과 교육의 완전성으로부터의 이탈과 괴리는 물론 교육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버리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청소년은 그들의 세계를 표현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적성을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교육과 수련활동에 관해서는 이론적 기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며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에 관한 논의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육유산 속에서 찾을 일이다. 공부에 대한 인식이 협애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화석화된 지식에 얽매이는 오늘의 현실에서 교육의 이상을 원형으로 간직하고 있는 화랑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래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참 고 문 헌

- 『三國史記』(/1973). 서울 : 民族文化推進會.
 『三國遺事』(/1973). 서울 : 民族文化推進會.
 『牛溪集』(/1987). 서울 : 景仁文化社.
 김기웅(1974). 한국의 원시·고대미술. 서울 : 정음사.
 김봉수(1960). 화랑도의 교육적 가치. 경북대학교 논문집, 제4집, pp.593-606.
 김상현(1999). 신라의 사상과 문화. 서울 : 일지사.
 김영하(1990).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는가. 역사비평, 제10호, pp.282-288.
 김인회·정순목(1974). 한국문화와 교육.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철준(1975).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 : 지식산업사.
- 김충열(1998). 한국유학사1. 서울 : 예문서원.
- 류승국(1976). 한국의 유교.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균섭(2002). 유교사상의 일본적 변형 : 충효론을 중심으로. 한국일 본 학회 제64회 학술대회 Proceedings. pp.359-366.
- 박재문(1985). 화랑도교육. 김선양 외편, 한국교육학의 탐색. pp.165-199. 서울 : 고려원.
- 손인수(1996). 신라화랑도의 공간. 서울 : 문음사.
- 손진태(1948). 조선민족사개론. 서울 : 을유문화사.
- 신채호(1910). 동국 고대 선교고. 단재신채호전집(별집). pp.47-50. 서울 : 형설출판사.
- 신채호(1925). 조선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 단재신채호전집(중권). pp.103-124. 서울 : 형설출판사.
- 신채호(1931-1932). 조선상고문화사. 단재신채호전집(상권). pp.355-466. 서울 : 형설출판사.
- 이기동(1979). 신라 화랑도의 사회학적 고찰. 역사학보, 제82집, pp. 1-38.
- 이선근(1954). 화랑도 연구. 서울 : 동국문화사.
- 지교현(1992). 신라화랑 연구에 나타난 일본학자 아유카이와 미시나의 논리. 신라화랑연구. pp.105-134.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최재석(1987). 한국고대사방법론. 서울 : 일지사.
- 홍희유 · 채태형(1995). 조선교육사1.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 鮎貝房之進(1932). 花郎攷(雜攷 4). 京城 : 近澤出版部.
- 三品彰英(1943). 新羅花郎の研究. 이원호 역(1995). 신라화랑의 연구. 서울 : 집문당.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al ideas of the Flower Youth

Park, Kyoong-Seop*

The Flower Youth in the Shilla-dynasty Korea admitted various ways of life from other cultures as realistic devices for themselves. If we are to understand the Flower Youth we must enter into their thought and try to appreciate what they felt and did. We have only a few historical materials, a few ruins of those days of the Flower Youth. Yet these few are to make us admit at the specific educational ideas and realities of the men of Shilla. Eschewing the aims of education such as knowledge for its own sake, this commission sought to state the aims of education in terms of the sociological realities of the Shilla of its day. Activities of the Flower Youth divided into several areas. According to this division, discipline activities should aim at preparation for ethical character, patriotic membership, and command of the fundamental processes. Here, in conclusion, we shall add a few remarks which should especially be observed by the youth as he approaches the years of early manhood. The youth should sometimes be released from the narrow constraint of school, otherwise his natural joyousness will soon be quenched. When the youth is set free he soon recovers his natural elasticity.

* Lecturer, Sungkyunkwan University